



인도네시아 신발기업 파크랜드, 성담간 아름다운 상생

Tel. 021-3002-909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Cibodas - Tangerang

MONTHLY KOFA

코파의

칭호

Vol. **63**
2019/12



신남방 양자협의 첫 결실...한-인니 CEPA 최종타결

협상 재개 9개월만에 최종 타결 이뤄...내년 초 정식 서명 추진



▲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제2차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날인 25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빠르만포 무역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에 임석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후 수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서 합의하고 10월 16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실질 타결을 발표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현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협의의 첫 결실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액은 200억달러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 12위 교역대상국이다.

CEPA를 통해 한국은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대국 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여 경쟁력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만들었다.

특히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일본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일본과 비교하면 품목 수는 일본(93.3%)과 거의 비슷한 93.0%이고 수입액은 일본

(94.4%)보다 높은 97.0%에 달한다.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와 같은 주요 품목은 발효 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섬유, 기계 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상당수 중소기업 품목에서도 C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 중 한국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은 이익 균형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한다.

다만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통상당국은 설명했다.

양국은 CEPA 협정에 협력채터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 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 인력 확보 등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땅그랑반튼한인회 창립 10주년 출판기념회 열려

지난 10년의 흔적을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승화시켜



지난 29일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한인회(회장:채만용)는 창립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땅그랑반튼한인회 10년사와 지역 한인동포를 위한 한인기업정보 및 생활가이드 두 권의 책을 출판하고 10년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보존하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김종민 총영

사를 비롯해 코린도그룹 승은호회장, 코참 송창근회장, 뿌라따마 서영률회장, 파크랜드 광국민 부회장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출판취지와 배경의 설명에 이어 그간 10여년간 땅그랑반튼한인회를 위해 애 써주신 모든분들의 자축연의 행사로 이어졌다.

땅그랑반튼한인회 10년사는 타 국가, 타 한인회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이

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약 10개월간 수집하고 정리해 출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난 활동에 대한 사실적 표현과 근거를 찾아내는 숱한 고초와 어려움속에서 발행되었다.

채만용회장은 다가오는 10년을 위한 준비는 지난 10년의 활동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가에 달렸다고 했으며 땅그랑반튼한인회의 차세대 동포에게 주옥같은 봉사정신을 이어가는 초석을 다지는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그간 땅그랑반튼한인회를 위해 조용히, 꾸준히 지원해 준 뿌라따마 서영률회장과 백두회 김영주



▲ 땅그랑반튼한인회 채만용회장

고문님의 감사를 표하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땅그랑반튼한인회는 2010년 초대 이세호회장을 시작으로 하연수 2대회장, 오세명 3대회장을 거쳐 현재 4기로 이어지는 인도네시아에서 보기도 문 탄탄한 조직력과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고 그중 현지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수넛판 행사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가정의 날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한인동포를 위한 문화강좌를 상시 열어 한인동포의 문화적인 혜택에도 소홀함 없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미디어코리아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전향적인 사업환경으로 인해 중부자바주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투자조정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분기에 실현된 투자는 전국적으로 205.7조 루피아에 달했다. 이중 중부자바주는 47.24조 루피아를 달성해 자카르타주의 41.1조 루피아보다 앞섰다.

투자관련 창구를 한 지붕 아래 모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부자바 통합민원실장 랏나 카우리는 상기 중부자바 투자유치실현액 중 해외투자자가 32.37조 루피아, 국내투자자가 14.97조 루피아를 기여했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액인 47.42조 루피아의 99.6 퍼센트를 달성한 것이라고 그녀는 밝혔다. 이러한 투자집중상황으로 인해 중부자바의 실업률이 크게 낮아져 지난 1 분기에 비해 71,639명의 인력이 여러 기업들에 채용되었다고 덧붙였다.

저빠라, 바팡, 스마랑, 브레베스, 찰라잡, 수코하르조, 보요왈리 등 중부자바의 여러 지역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입되고 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이들 기업들은 주로 전기, 가스, 수자원 등 분야가 주를 이루며 이외에도 피혁제품, 섬유, 자동차 부품, 식료품 및 부동산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녀는 밝혔다. 랏나는 밝은 투자유치전망에 힘입어 내년 7퍼센트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했다.

“중부자바주는 사회간접자본, 유망한 사업부지, 숙련된 노동력, 친기업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각오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 7%의 경제성장을 달성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보입니다.”

중부자바 투자실현액 47조 2,400억 루피아로 자카르타보다 높아

중부자바 주지사 간자르 쁘라노워는 투자관련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포함해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린 유망 투자자들을 위한 여행상품 패키지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중부자바의 투자가능성을 들여다 보면서 맛집투어도 병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는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중부자바 투자사업포럼(CJIBF)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전향적인 투자환경,

다른 지역보다 앞선 사회간접자본과 사회복지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긍정적 지표들을 제시하며 중부자바가 해외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중부자바사람들은 재미있고 겸손하며 슬기롭고 변화에 작 적응합니다. 이 역시 중부자바가 투자처로서 가장 호의적인 점수를 받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중부자바가 378개의 각급 대학, 1,588개의 직업고등학교(SMK)를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노동력 수급계획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기관들을 통해 여러분 개별 사업 여건에 맞는 특별한 문화교육을 요구한다 해도 우린 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

다.” 그는 자신만만해 했다.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배동선 번역 제공) *출처: The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신발기업 파크랜드, 성담간 아름다운 상생



지난 13일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신발기업 파크랜드(대표:곽국민)와 성담(대표:홍춘식)간 Acquisition Signing Ceremony가 자카르타 소재 Fairmont Hotel에서 열렸다. 두 회사는 2019년 9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개월만에 본 계약을 하게 되었다. 파크랜드는 중부자와 룬방의

30ha규모의 대형공장을 이번 에 인수, 확장해 세라의 PWI 1, PWI 2를 비롯해 쯔빠라와 룬방까지 명실상부 인도네시아 최대의 한국 신발기업으로 급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성담의 홍춘식사장은 신발인으로서의 열정과 뛰어난 공장이 파크랜드 도약의 발판이 되어 기쁘고 마음이라



고 말했으며 파크랜드 곽국민 부회장은 홍춘식사장의 열정을 잊지않고 되살려 최고의 신발공장으로 키우겠다는 다짐을 함께했다.

재인니한국신발협회 수석 부회장은 두 회사의 원활한 계약의 모습속에 우리 한국신발기업의 미래가 더욱 더 큰 발전을 해 나갈것이라는 비전

을 보게 되었다는 축사를 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한국신발기업은 상호경쟁과 상생을 통해 무한경쟁시대에 튼튼한 경쟁력을 스스로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본다

LIGHT+
The Solutions of LED

인니 현지 생산
LED 조명 가성비 최고
품질 완벽보장



LED Module Light SSM



LED Street Light SSE



HIGHBAY UFO



LED TUBE T8

한국부품을 사용해 수입품에 비해 가성비 극대화
인니 판매를 위한 SNI, TKDN, SUCOFINDO, ISO9001등 완벽한 인허가
적정 재고보유로 소량 및 대량주문에도 정확한 공급가능
현장 맞춤형 특수스펙제작 및 품질보증과 신속한 A/S



PT. Surya Citra Teknik Cemerlang (LIGHT+)

JL. Raya Narogong Pangkalan 1B, Bantar Gebang, Bekasi 17151

TELP : (021) 8262 7380 Fax : 021) 8263 4261

한국인 상담 : 0816 857 404 Email : sungleejkt@gmail.com

인니 지자체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월 4백만 루피아 넘는 곳도



인도네시아 전국의 지자체들이 잇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주요 지역으로 수도 자카르타의 서쪽 반뜰주와 제2도시 수라바야가 위치한 동부 자바주가 20일까지 지역최저임금(UKM Upah Minimum Kota)을 결정했다. 인상폭은 중앙 정부가 앞서 결정한 8.51% 수준에 부합하는 지자체가 많다.

이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동부 자바와 반뜰주를 비롯한 다섯 개의 자치 단체에서 월 400만 루피아를 넘어섰다.

동부 자바주는 20일, 주 내

38개 시·군의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상폭은 앞서 노동부가 설정한 8.51%에 부합했다.

이날 국영 안파라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폭이 가장 금액이 큰 지역은 수라바야로 월 420만 479루피아였다. 가장 낮았던 곳은 마두라 섬의 삼팡(Sampang) 지역 등 9개 지역으로 191만 3,322루피아였다.

반뜰주도 19일자로 주지사령 '2019년 제561/320호'를 공포하고 주 내 8개 시·군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인상폭은 세랑 만이 12.1%였으며, 기타 7개 지역은 8.51%로 했다.

이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필레곤으로 월 424만 6,081루피아가 됐다. 가장 낮은 지역은 르박으로 271만 654루피아였다.

재무부,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 GDP 대비 2.2%대 예측

인도네시아 재무부 수아하질 나자라 차관은 18일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 총생산(GDP) 대비 2.2%에 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세수 부족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GDP 대비 2~2.2%로 예측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아하질 차관은 "세수 목표 달성은 곤란하지만, 세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 사업을 계속 수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2019년도 예산에서 재정적자를 GDP 대비 1.84%인 296조 루피아로 설



▲ 인도네시아 스리 몰야니 재무장관 정했다. 올해 세수 부족은 스리 몰야니 재무장관도 "3분기(7~9월) 법인세·소득세의 세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고 지적했지만 "10월 18일 기준 법인세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8.54% 증가, PPH21(개인 소득세)가 10.42% 늘어나면서 연말까지 목표 세수까지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모욕적인(?) 문제

미국 유타 주의 한 신문에 난 기사를 읽다가 궁금하다. 더하여 겁이 난다. 앞으로 어떻게 설화(舌禍)없이 안전하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다. 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산수 숙제를 풀다가 문제가 모욕적이라며 풀지 않고, 점수는 받아야 하겠기에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문제를 풀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이 학생의 엄마도 문제가 문제 있다며 교육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발단은 무게를 재는 단위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문제에서 제기된 것이다. "오른쪽 표에는 3명의 초등 4년 여학생 몸무게가 있다. 이사벨의 몸무게는 가장 가벼운 여학생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가? 이사벨: 35kg, 아이렌: 29kg 38g, 제니: 29,238g"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바는 어떻게 '여학생의' 몸무게를 예로 들었느냐는 것이다. (남학생의 몸무게를 예로 들었다면 무난했을까?) 편지를 받은 담임 선생님은 그 학생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성적은 걱정 말라고 하였다. 당연히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하였고 문제를 제공한 업체도 이를 전해 듣고 입장을 밝혔다. "여학생의 몸무게를 풀이문제의 예로 들면 (여학생에게) 모욕적이다." 라는 이 주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성에게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다고 한다. 그래도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남녀를 구별하는 용어들을 잘 쓰지 않게 되었다. stewardess 대신에 flight attendant가 좋은 예다. 경찰도 policeman에서 police officer로 바뀌었다. fireman은 fire fighter이다. fire extinguisher(소화기)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의장도 chairman에서 chairperson이고 전업주

부는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housewife가 아니라 homemaker가 되었다. 사람이 만든 man-made는 아예 artificial(인공)로 쓴단다. 남성도 여성도 아니거나, 동성끼리 사귀는 사람들, 성소수자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하기에 LGBTQ라고 한단다. Lesbian, Gay, Bisexual, Trans gender, and Questioning을 존중해서 달리 부르는 말이다. Asexual(무성)을 포함하면 LGBTQ다.

바지는 여자도 입으니 남자가 치마를 입을 날도 올 것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승선을 막았던 배에 여성이 함장까지 맡고 특수전 부대에도 전투병 여군이 등장했다. 여성이 약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회는 더불어 살아야 하기에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 성인보다는 유아나 노약자, 건강한 사람보다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강하고 젊은 남성이 참고 돕고 기다리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는 없을 것이다.

구분해 오던 남녀화장실을 통용하자는 움직임은 일부겠지만 여성 측에서 시작했다. 위험하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 남성인 나는 거북하다. 남녀혼탕을 쓰는 나라가 있다지만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보면 익숙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여러 형제들이 한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는 큰 형님의 자녀로 삼는 나라도 있다. 옛날의 왕도 아니면서 부인을 여럿이 두고 사는 나라도 있기는 하다. 그런 배경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여학생의 몸무게를 예로 든 문제를 제공한 업체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채택한 경쟁력 있는



조기조 교수

업체라 한다. 그 업체는 지난 수년간 미국의 여러 주에 문제 은행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지적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한다. 백번 양보를 해도 어이없다는 것이다. 성별, 연령,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것이 많다. 어떻게 알겠느냐마는 지금은 맞지도 훗날 틀린 것이 된다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훗날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훗날에 지금의 나는 무식하거나 소롱거리인가? 만약, 누가 사람들이 맞다 해도 그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편, 타당성을 기본으로 하는 진리와 지식은 호불호가 아닐진대..... 한때, '남편 퇴근 시간은 여자하기 나름' 이라는 카피가 대박이었다. 지금 이걸 들먹였다가 어떤 소릴 들을지 모르겠다.

조기조(曹基祚 Kyo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 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디자인 연구소는 코파의 힘, 봉제협회 코가지,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의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고객의 마음을 훔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부산업체, 나이키에 1조 납품 ‘잭팟’

‘노패드 젤 압착기’ 공급 중
30년 신발산업 현장서 뚝
엔지니어 출신 오수종 대표
10년 연구 끝에 자체 개발

직원 13명을 둔 부산지역 한 신발업체가 나이키와 1조 원 규모의 신발 압착기 납품 계약을 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조선과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제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한 강소기업이 지역 제조업에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 넣었다.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GTM-코리아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의 신발 생산 라인에 지난 9월부터 자체 생산한 ‘노패드 젤 압착기’를 공급 중이다. 이전에는 신발을 만들 때 각

종류와 크기에 맞는 플라 스틱 틀(패드)을 일일이 만들어야 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노패드 젤 압착기’는 기계 안에 투입된 젤이 정해진 신발의 모양과 치수대로 형태를 만든다. 좌우·형상·크기 구분 없이 전면을 고르게 압착하는 장점도 있다. 제작비도 절감하고 패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도 예방해 획기적이라는 평가다. 가격도 이전 압착기와 차이가 없어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엔지니어 출신인 오수종 GTM-코리아 대표는 30년 넘게 신발산업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노패드 젤 압착기’를 만들어냈다. 해당 가격은 2500만 원가량으로, 나이키의 글로벌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공장에 2만5000대가량을 납품해 6000억 원대 매출을 기대한다. 현재 나이키의 신축 OEM 공장에 우선 설치되고 있는데 이후 10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를 대체할 계획이어서 매출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키 납품을 계기로 아디다스 등 다른 메가 브랜드에서도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월에 GTM-코리아



는 나이키의 1차 벤더로 등록했다. 등록 기준이 종업원 300명 이상 등 까다롭지만 GTM-코리아는 예외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회사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는 방증이다. 신발업계 관계자는 “나이키가 부산의 GTM-코리아를 먼저 찾아왔다. 바위에 이쑤시개를 꽂아 뚫었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 이라

고 말했다. 젤 압착기를 개발하는 데 지역 기업도 힘을 보탰다. 특히 어린이용 2족 압착기를 개발하는 데는 지역의 신발업체인 창신과 나이키 코리아 자동화팀의 기술지원과 협력이 큰 힘이 됐다. 오 대표는 “부산 신발산업이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제도적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관공서에서 취급하던 허가들을 투자조정청(BKPM)이 모두 취급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사업용이성지수(EODB) 향상을 도모할 임무를 부여받은 바흐릴 라하달리아 청장을 수장으로 하는 BKPM에 더욱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투자저해 요소로 판단되는 40개의 장관령들을 12월까지 폐기하겠다는 조코위 대통령 목표의 정점을 찍었다.

“대통령은 특히 사업진행 편의를 제공하는 허가들을 비롯해 허가에 대한 모든 권한을 BKPM에 집중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내각 사무처장 브라모노 아눔이 목요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각료회의를 마친 후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BKPM에 부여하는 대신 2021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사업용이성지수(EODB)가 우선 50위를 달성하고 가능하면 40위로 근접시키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년 연속 가장 저조한 3분기 성적을 보인 경제성장율을 제고하려고 투자유치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투자성장율은 국가 GDP 성장율의 3분의 1 정도를 기여하는데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6.96퍼센트에서 올해 3분기엔 4.21퍼센트로 내려앉았다.

바흐릴 청장은 조코위 대통령이 BKPM 업무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대통령 지시(Inpres)를 정식으로 낼 것이라 말했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BKPM으로 전보되어 모든 허가업무는 BKPM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바흐릴을 덧붙였다.

모든 사업허가권 보유한 투자조정청 역할 확대



▲ 자카르타 소재 투자조정청(사진 : kontan.co.id/Achmad Fauzi)

그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정부 내 각 허가단계에서 발생하는 관료주의를 배제하고 허가절차를 일원화할 목적으로 출범시킨 온라인 단일창구(OSS) 시스템 작동이 기대 이하인 것이 각 부처 및 정부기관 간 중첩되는 권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OSS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세 시간만에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사업현장에서 이러한 개선이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이와 별도로 사업자들이 각 부처 및 정부기관,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한 허가를 따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흐릴의 말이다. 최근 지방의 OSS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연동시키기 위한 조율회의에서 전국에서 소집된 지방 투자유치국(DPM PTSP) 수장들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모았다고 그는 밝혔다.

전국 지방 투자유치국 수장들은 DPM PSTP 관련서류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해당부처에 보낸 시점부터 허가업무 지연이 종종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부 수마트라 DPM PSTP장 마스와르 데디는 이번 결정으

로 모든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단해질 것이라며 적극 찬성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BKPM에서 관련허가신청을 받는다 해도 실제 허가수속절차는 각 부처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수속기간 지연 뿐 아니라 언제 처리될 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우린 반드시 해당 부처의 회신을 받아야만 관련 허가를 후속 수속할 수 있습니다” 마스와르는 포스트에 이렇게 말했다. “BKPM에 모든 허가의 수속권한이 주어진다면 허가발급에 대한 분명한 법적 보호막이 생기는 것이니 우린 백프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BKPM업무는 온갖 간섭을 받을 겁니다.”

사업가들은 대체로 이 조치를 조심스럽게 환영했지만 아직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 관련 규정 준비를 통해 이를 법제화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 하리아디 수캄다니 회장은 각 정부기관들 사이 중첩된 권한에 대한 ‘진부한’ 이슈를 마침내 털어낸 이 조치는 투자자들이 오래동안 기다려온 것이라고 말

했다.

“이 문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코위 대통령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실제로 수행될 것이냐에 있으니까요.” 하리아디의 말이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국제관계담당 신타 캄다니 부회장은 기업이 사회에서도 대통령의 새 정책을 지지한다면 다음 세 가지 단서를 달았다. 첫 번째는 사업허가권을 가진 부처들을 규정된 법의 개정이다. “총괄적 법률(옵니버스 로)을 통해 현행 허가관련 법률들을 다시 쓰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투자자들에게 사업적 안정성 보장이 인정받기까지 적응기간이 최소한 한 달에서 6개월 가량 필요하겠지만요” 신타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하리아디가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허가업무의 절반을 지방정부가 처리해 줘야 한다는 부분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그의 첫 임기 중 중앙정부의 규정과 엇박자를 낸다고 판단되는 3,000개의 지방정부 규정들을 폐기를 시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중앙정부 규정이 지방정부의 허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신타가 덧붙였다. “BKPM이 인도네시아의 관련허가 발급기관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하게 되어야만 지방정부들도 자발적으로 허가권한을 BKPM에 이양할 것”이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세 번째로 BKPM에 허가업무를 집중시키기 위해 중앙부처들과 지방정부들이 모든 단계에서 통일성과 동시성을 담보하기 위해 확실하게 OSS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배웅선 번역 제공' *출처: thejakartapost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지를 통해 신발관련 업체들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 징

-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회원사 약 200여 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3002-9091 (mr. kang) 0858-9060-0962

PT. KAISAR SINAR HISASH
www.siansash.co.id / www.pintulipat.id

우리는 窓門을 만듭니다!

시안의 窓門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고 책임시공을 약속합니다.

HEAD OFFICE / FACTORY JAKARTA
Jl. Pahlawan KM 1, Karang Asem Timur
Citeureup - Bogor 16810 Indonesia

Telp. : 021-8794-3838 Fax.: 021-8794-3839
Email : info@siansash.co.id

<지난호에 이어>

3. Jacob Ludwig Felix Mendelssohn-Bartholdy 38세 (1809-1847)

유태인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아 음악 뿐만 아니라 어학, 문학, 철학, 미술에도 재능을 보인 작곡가이다.

모차르트 이후에 나타난 음악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으며 부유한 환경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녀 지명이 그의 작품명에도 많이 나타난다.

- '핑갈의 동굴'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환상곡'

부유한 환경으로 인해 비통한 음악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은 평화롭고 맑고 아름답다.

Wagner 바그너는 멘델스존을 음악에 있어서 위대한 풍경화가라 칭하였다.

그의 이름중 뒤의 Bartholdy 는 기독교를 믿는 유태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외삼촌의 이름을 따왔다

그의 음악사에서 업적은 잊혀져 있던 Bach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재해석하여 Bach 를 재평가 받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감상곡 :

Violin Concerto E-minor Op. 64,

한여름 밤의 꿈 (세익스피어 작품) Op. 21 * 축혼행진곡.

교향곡 No. 3 스코틀랜드 환상곡 Op. 56, No. 4 Italian Op. 90

Piano Concerto No.1 Op. 25

4. Robert Alexander Schumann 46세 (1810-1856) *음악의 시인

어릴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보인 슈만은 16세에 후원자인 아버지의 별세로 어머니의 희망에 의해 라이프니츠 대학의 법대생이 되었다.

20세에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고 음악으로 유턴하게 된다. 피아노를 전공하였으나 지나친 연습으로 손을 다쳐 작곡에 전념하였다.

피아노 선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딸과 결혼에 성공하였으나 작곡가로서 생전에 이름을 날리지 못 했다.

집안 병력인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다 3 번이나 라인강에 투신했다가 마지막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한다.

현숙한 부인 Clara Schumann 은 그의 사망후 유럽전역을 돌며 Schumann 의 작품으로 연주회를 열어 슈만의 작품을 세상에 알렸다.

그의 피아노 협주곡 Op 54 은 그의 부인 클라라에게 바친 헌정곡으로 유명하다. 그를 음악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 시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슈베르트의 계승자로서 슈만은 250개의 가곡을 남겼다.

감상곡 :

Piano Concerto Op 54,

Traumerai 트로이메라이 (피아노 소품)

5. Louis Hector Berlioz 66세 (1803-1869) *표제음악의 완성자

표제음악이란 시, 스토리, 풍경등을 음악적으로 해석하여 음악표현의 분야를 확장하는 것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크시대 비발디의 사계가 표제음악의 기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Weber 베버의 피아노 곡인 '무도회의 권유' 를 관현악 곡으로 아름답게 편곡해 준, 프랑스 작곡가인 Berlioz 는 첫눈에 반한 세익스피어 연극의 여주인공에게 뒷자를 맞고 그에 대한 반감으로 교향곡을 작곡했다.

환상교향곡이란 제목을 붙이고 또 5악장으로 구성된 각 악장마다 표제를 붙였다. 타고난 반골정신과 격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변화가 많은 삶을 살았다.

그는 Wagner 바그너와 같이 피아노를 연주 못하는 작곡가로 유명했다. 피아노를 칠 줄 몰랐기 때문에 교향악단이라는 데 전념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감상곡 :

환상 교향곡 (Symphonie Fantastique) Op. 14

6. Franz Liszt (1811-1886) 75세 *피아노의 왕

리스트는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연주자였다. 고난도의 작품을 직접 작곡하여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연주를 하여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한다.

물론 그 시대에 들어 악기의 개량이 한몫 거든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성능 좋은 그랜드 피아노가 그때 생겨남).

장발의 리스트는 여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았다고 하며 어쩌다가 뒤에 나오는 독일 작곡가 Wagner 의 장인이 되기도 한다.

그의 큰 업적은 문학적, 시적 내용을 관현악에 의해 표현하려고 한 교향시를 단 악장 형식으로 작곡했다는 것이다. (그전 까지 보통 4악장)

헝가리 계 독일인으로 '헝가리 광시곡' 을 작곡해 조국의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다 한다. 말년에는 카톨릭 교회음악에 심취하여 사제서품을 받았다.

작곡가로서의 위치는 흔들리는 감이 있으나 그는 많은 젊은 음악가를 배출하였고 음악인의 지위와 생활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감상곡 :

Piano Concerto No 1

헝가리 광시곡 (Hungarian Rhapsody)

7. Frederic Francois Chopin (1810-1849) 39세 *피아노의 시인

조성진으로 인해 우리에게 친숙해진 쇼팽 콩쿠르의 쇼팽은 프랑스 아버지와 폴란드 어머니 사이의 혼혈아였다.

피아노 음악의 최고의 작곡가이자 연주자인 그는 20년을 폴란드에서, 나머지 19

임철우의 손바닥 만한 서양음악 이야기 7,8



년을 프랑스에서 살면서 대부분 피아노곡을 작곡하였다.

병약했던 그는 26세 때 리스트의 소개로 조르드 상드라는 여류소설가를 만나는데 세기적 연애사건인 유명한 만남이다.

쇼팽은 섬세하고 여성스러웠지만 상드는 남장에 시가를 피우는 별난 여장부였다. 그녀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걸작을 썼는데 '빗방울 전주곡' 도 이 시절 작품이었다.

그는 피아노의 성능을 잘 알았으며 그의 연주양식과 기교는 독보적인 것이었다.

1848년 연주여행에서 얻은 병으로 파리에 서 3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는데 유해는 파리의 예술가 묘지에 묻히나 심장은 그렇게도 그리던 조국 폴란드로 보내져 안치된다.

그가 20세에 폴란드를 떠날때 짐속에 폴란드의 흙이 한줌 들어 있었는데 그걸 시신 위에 뿌렸다. 그의 비문에는 '그는 파리에 묻혔지만 폴란드의 흙에 자고 있다' 라고 적혀 있다.

그의 작품에는 슬라브 특유의 폴란드 적인 정서가 많이 나타나 그를 국민악파 음악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폴란드 민족 무곡의 형식으로 쓴 마주르카 56곡, 폴로네이즈 15곡이 있다. '군대 폴로네이즈' 가 유명하다.

감상곡 :

Piano Concerto No.1 & 2

군대 폴로네이즈.

8. Johannes Brahms (1833-1897) 64세 *독일 낭만파의 대가

독일 작곡가 3B 라 일컬어지며 절대음악을 지킨 낭만파의 대가이다. (3B 즉, Bach, Beethoven, Brahms)

절대음악 (순음악)이란 표제음악의 반대되는 말로 작곡가의 정신적인 내용을 순수한 음만을 써서 표현하는 음악이다.

절대음악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성악이 아니라 기악의 형식을 취한다. 스승 같은 슈만이 죽은 후 그의 부인 클라라 슈만을 죽을때 까지 보살펴 준 일화는 유명하다. 또 슈만을 기리는 곡 '독일 진혼곡' 을 10년에 걸쳐 작곡해 발표하였다.

독일의 대학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답례로 유명한 '대학 축전 서곡' 을 작곡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멜로디 '어여쁜 장미야 참 아름답다. 거치른 언덕길 가 외로운 숲속에 그 누굴 ...' 가 곡 중간에 들어 있다.

그는 Bach, Beethoven 을 계승한 19세기 마지막 순혈 (純血) 고전적인 작곡가로 일컬어진다.

그의 음악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안개 짙은 독일 북부 출신 이라는 것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겠다 하겠다.

그가 사모하며 보살핌을 아끼지 않았던 클라라 슈만이 1896년에 사망하자 1년후 빈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요란했던 19세기가 저물어 갈 무렵 모태슬로로 독일 전통음악의 정신과 절대음악을 곳곳이 지킨 파수꾼이 사라진 것이다.

감상곡 :

교향곡 No 1 (베토벤 교향곡 10번이라고도 말해진다) ~4번

대학 축전 서곡 Op 80, 헝가리 무곡 5번 (Hungarian Dance No.5)

바이올린 협주곡 Op 77.

9. Giuseppe Fortunio Francesco Verdi (1813-1901) 88세 *오페라의 왕

19세기말을 풍미한 오페라 작곡가의 최고봉인 베르디. 테너가 부르는 유명한 아리아

여자의 마음이 나오는 리고레토 Rigoletto, 그리고 축배의 노래 와 프로벤차 내 고향으로 가 나오는 춘희 La Traviata, 그리고 수에즈운하 개통을 기념하여 작곡한 Aida 등

이태리 오페라의 피라미드라 할 수 있고 철두철미한 오페라 작곡가 이다.

감상곡 :

여자의 마음, 프로벤차 내 고향으로, 축배의 노래, 개선행진곡 (Aida), 노예들의 합창 (Nabucco)

10. 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 70세

히틀러가 그토록 사랑했던 바그너는 오페라를 참다운 종합 예술로 승화 발전 시켰고 자신이 극의 구상을 했고 대사를 썼고 작곡까지 하였다. 그는 극작가, 시인, 작곡가가 하는 일을 혼자서 다 했다.

그는 새롭고 자연스런 화성과 대위법을 쓴 새 관현악법을 창시하여 음악의 표현력을 비약적으로 증대 시켰다.

1750년 Bach 가 죽으면서 Baroque 시대가 끝이 나고 1827년 Beethoven 이 죽으면서 Classic 시대가 끝이 나고 1883년 Wagner 가 죽으면서 Romantic 시대가 일 단락 된다.

히틀러가 광팬 이었다는 이유로 바그너의 작품은 이스라엘에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적인 문제로 연주가 금지되어있다.

감상곡 :

방황하는 네델란드인 (Flying Dutchman) 서곡

탄호이저 서곡

하루 12시간 일하는 '일상의 영웅들' ...의료인 위한 나이키 신발 나온다



스포츠 용품업체 나이키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신발을 만들어 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오는 12월 7일 현지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 종사자를 위한



특별한 신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나이키 에어 줌 펄스' 라는 이름의 이 신발은 나이키가 현지 의료 종사자들과 협력해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나이키는 본사 근처에 있는

도언베커 아동병원 의료진과 인터뷰를 통해 의료 종사자들이 대체로 어떤 신발을 원하는지를 살폈다.

이들 의료 종사자들은 신발이 신고 벗기가 수월하고 오래 서 있어도 편하며 이물질이 묻더라도 쉽게 닦이고 가벼우면 좋겠다고 공통으로 답했다.

이에 따라 나이키는 신발 끈을 없애 신고 벗기 편하게 만들고 밑창(아웃솔)을 특수한 고무 소재로 만들어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했으며

중창(미드솔)에는 에어 줌이라는 시스템을 채택해 가벼우면서도 탄력이 있게 했다.

또한 신발 외피를 코팅해 이물질이 묻어도 쉽게 닦이도록 했다.

그 결과, 시제품 테스트에서 대다수 의료 종사자는 나이키의 새로운 신발에 만족감을 드러냈는데 기존 수술화보다 이 제품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는 "테스트 과정에서 이들 의료인은 하루에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1시간도 채 앉아서 쉬

지 못했고 평균 6~8km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들은 그야말로 일상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신발은 7가지 스타일로 나올 예정인데 이 중 6가지 스타일은 병원의 아동 환자들이 디자인한 것으로, 판매 수익금은 모두 기증처럼 수술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발매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신문)

‘신발’ 품는 의류업계

스포츠·아웃도어 업체는 물론 패션그룹형지, 한성에프아이 등 의류 전문업체까지 신발 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

‘코트디렉스’ ‘디스럽터’ 등 휠라가 내놓은 신발이 족족 밀리언셀러를 기록하자 패션업계가 신 성장 동력으로 신발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다.

17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신발시장 규모는 2009년 3조8000억원에서 작년 6조5000억원대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운동화는 2010년 36.2%에서 2017년 53%까지 비중이 커졌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 바람이 불면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는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패션업계는 신발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패션그룹형지는 지난 4월 코니글로벌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신발 사업에 진출, 내년 1월 ‘가스텔바작 슈즈’를 출시할 계획이다.

코니글로벌은 형지, JBB글로벌, C&K 등 기획·제조·유통분야 전문기업이 공동 출자해 작년 9월 만든 회사다.

가스텔바작 슈즈는 캐주얼 스니커즈로 일상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30~40대를 메인 타겟으로 20만원 초반 가격대로 선보인다.

형지 관계자는 “가스텔바작 브랜드에 신발 부문을 추가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라인을 키우고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웨어 전문 업체인 한성

에프아이는 내년 신규 스포츠 브랜드 ‘앤제이’ 론칭을 앞두고 올해 초 신발 사업부를 신설했다.

앤제이를 중심으로 ‘레노마’와 ‘올포유’ 등 자사 브랜드의 신발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데상트코리아는 작년 10월 600억원을 투자해 부산에 국내 최대 규모(1만5000㎡)의 신발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웠다.

이곳에선 신발 제품 연구부터 디자인, 샘플 제작까지 한번에 이뤄진다.

앞서 케이투코리아그룹은 2016년 ‘신발연구소’를 세우고 ‘K2’, ‘아이더’ 등 그룹 내 브랜드별 신발 신제품 개발 및 성능 테스트 등 신발 기술력 향상을 위한 R&D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어글리슈즈의 대중화를 연 휠라 ‘디스럽터’

이같이 패션업계에 ‘신발 바람’이 분 배경에는 휠라코리아가 신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것이 작용했다.

휠라코리아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8670억원, 영업이익은 69% 늘어난 1249억원을 기록했다.

패션 아이템 중 신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휠라코리아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신발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데다 휠라 등 몇몇 업체가 신발 사업으로 크게 성장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패션업체들이 신발 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며 “신발이 의류에 비해 유행을 덜 타기 때문에 재고 소진이 쉬워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의류업체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대한민국 최초 ISO 8573-1 Class “0” 인증획득!



www.ekyungwon.co.kr

대한민국 콤프레샤의 역사

경원 콤프레샤



경원 콤프레샤는?

- 사용이 편리한 다기능 Full MICOM 장착
-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운전모드
- 대화가 가능한 운전소음
- 오일함량 2PPM 이하의 청정한 압축공기
- 주위온도 50C에서도 안정적 운전가능
- 경원의 모든제품 AS가능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도 가능) 및
- 주요부품, 소모품 상시보유

스마트한

내 손안의 관리시스템- 경원 CMS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완벽한 해법, 경원 콤프레샤 모니터링 시스템



PC Version



운전상황 Monitoring

1. 최대 15대까지 모니터링
2. 상태 모니터링
 - 공기압력, 토출온도, 운전상태
 - 실시간 온도, 압력 확인
 - 과거 운전 이력 확인
 - 알람 실시간 문자메시지 발송
3. 운전시간
 - 총 운전시간, 남은 유비보수 시간 확인
4. 콤프레샤 관리보고서 출력
 - 가동율, 유지보수 시간, 가동 패턴
 - 에너지 유량 현황, 전년동기 전력, 유량 분석

PT. KYUNGWON CENTURY KORAIR

INDONESIA OFFICE

Jl. Raya Serang KM. 12 Desa Bunder
Cikupa-Tangerang
Telp : 021 5940 2605
김태봉 : +62 811 932 689
E-Mail : kimb160@gmail.com

JEPARA OFFICE

Ruko 1A Suudi RT. 04 RW. 01Desa Kali Pucang Wetan,
Kec. Welahan Jepara Jateng (Depan SMPN 1 Welahan)
Kode Pos 59464
Telp : 0291 751 2682

KOREA OFFICE

102 Dongil-Ro, Kwangjin-Gu
Seoul, Korea
Telp : +82 2 465 6308
Fax : +62 2 468 7202
E-Mail : dbkw2000@hanmail.net
http ://www.dbkw2000.com

데커스, 2분기 순매출액 상승으로 올해 실적 '상향' 전망

어그 (UGG)와 호카 원원 (HOKA ONE ONE) 등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그룹 데커스가 3분기에 8%의 성장을 기록해 2019년 성장 전망을 업데이트했다.

“당사는 올 회계연도 내내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호카 브랜드의 성장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어그 브랜드의 최고 판매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2019년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고 데이브 파워스 회장은 말했다. “또한 남은 올해를 정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2분기 검토
데커스의 순매출액이 5억 4,22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전

년 동기 대비 8.0%가 성장했다. 고정환율을 근거로 보면 순매출액이 9.5% 성장한 셈이다. 영업수입의 경우 전년 2분기에는 9,040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올해 2분기에는 9,71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당 이익도 지난 해 2분기 2.48달러에서 올 2분기 2.71달러로 상승했다.

브랜드 요약
2분기 어그 브랜드의 순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해 총 4억490만 달러를 기록했다. 호카 원원의 2분기 순매출액이 49.9% 증가해 7,810만 달러를 기록했다. 브랜드 테바 (Teva)의 순매출액도 6.7% 증가해 2,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사눅 (Santuk)도 22.4% 상승해 1,07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통 채널 요약
2분기 동안 도매 채널 순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 성장해 4억4,350만 달러를 기록했다. DTC 채널의 2분기 순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해 9,870만 달러를 달성했다.

지리적 요약
2분기 국내 순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9% 성장해 3억 5,8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해외 순매출액도 3.2% 성장해 1억 8,42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망
2020년 3월 31일 말 기준으로, 데커스의 순매출액은 21억 1,500만 ~ 21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3분기 순매출액도 8억8,500만 ~ 9억만 달러 범위로 기대되고 있다.

이사회 발표
지난 10월 24일 이사회 회장으로



로 마이크 데빈이 임명됐다. 데빈 신임회장은 2011년부터 이사회 이사회의 일원이었으며 존 김슨스

전임 회장을 잇게 됐다. 김슨스 전임 회장은 이사회 임원직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따하리, 디즈니와 콜라보... 마트서 '눈길'



인도네시아 소매 대기업 마따하리 뿌뜨라 프리마 (PT Matahari Putra Prima, MPPA)는 최근 미국계 월트 디즈니 인도네시아(The Walt Disney Company Indonesia)와 제휴했다고 발표했다.

마따하리 계열의 대형 마트에서 디즈니 캐릭터 의류 등을 취급하는 것 외에도 식료품에 미키 마우스 등의 캐릭터 패턴을 입힌 포장 패키지를 채택한다.

제휴 기간은 1년이다. 마따하리 계열의 마트 하이퍼마트

(Hypermart), 프리모(Primo), 푸드마트(Foodmart), 하이프레시(Hyfresh) 등의 점포에서 디즈니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자회사 픽사(Pixar)의 콜라보 상품을 취급한다.

마따하리에 따르면 빵이나 과일, 채소 등 신선 식품에서 디즈니와 제휴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마따하리의 현재 점포 수는 하이퍼마트 104개, 프리모 4개, 푸드마트 20개, 하이프레시 7개다.

한편 1~9월기 연결 결산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6조 6,400억 루피아로 감소했다. 순손실은 2,658억 루피아로 전년 동기 손실(3,359억 루피아)에서 축소됐지만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나이키, 아마존서 철수... “소비자와 직거래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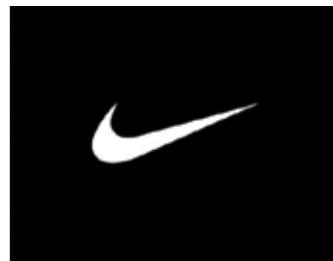
세계 최대 스포츠 의류·신발 브랜드 나이키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에서 자사의 모든 상품을 철수한다고 선언했다.

14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나이키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마존에 더는 상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이키와 아마존은 지난 2017년 파일럿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이키 운동화, 의류, 스포츠 액세서리류를 아마존을 통해 판매해왔으나 갑작스레 협업을 중단한 것이다.

CNBC는 나이키가 아마존과



협업을 시작할 때부터 나이키 내부에서는 자체 웹사이트 등 온라인 판매 위축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강했다고 전했다.

나이키 관계자는 “좀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중심의 소비자 경험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려 한다”면서 “이런 전략의 하나로 아마존과의 소매유통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나이키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은 전체 유통 물량의 30%를 점한다.

나머지는 백화점, 신발 전문점 등에 납품하는 도매유통과 아마존 등 제삼자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판매분이다.

나이키가 독자적 온라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최근 이 회사에 영입된 이베이 최고경영자(CEO) 출신 존 도나휴 소매유통부문 CEO의 역할이 컸다고 CNBC는 해석했다.

시장분석업체 에버코어 ISI 애널리스트 오마 사드는 “나이키의 아마존 이탈이 다른 의류업체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서 “나이키의 뒤를 따르는 브랜드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화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Jl. Mahoni 1 Multiguna Niaga Lippo Cikarang No. 3, Sukaresmi
Cikarang Selatan Kab Bekasi - Jawa Barat, Indonesia
Telp. : +62 21 8990 4038 / 4037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겨울용 풋웨어에 사용하는 ‘울’ 소재에 대한 모든 것



모직으로 만든 패브릭은 문명보다도 오래 됐으며 오늘날에는 연간 800억달러 이상의 판매 수익을 내고 있는 소재다.

울의 습기를 흡수 및 배출하는 성능 때문에 운동선수나 군인, 심지어 우주비행사들의 의류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울의 유형은 양털로 만든 플리스지만, 염소나 사향소, 토끼 같은 다른 동물로도 소량의 다양한 울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 산업에 다양성을 더하고 있다.

인류가 시작되기 전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을 입고 있었으며, 야생 양을 사냥하면서 양털이 단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기원전 1만년경, 양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이 동물이 고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젖을 짜고 양털을 깎아 옷을 만들

어 입었다. 본래 울 생산은 추운 지역에서 더 번성했다. 양들이 추위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많은 털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 20세기 초 양털을 깎는 헛간

이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양털을 생산하는 양은 기원전 6,000년경에 등장했으며 그로부터 2,000년 후 유럽에 유입됐다. 그리고 문명이 성장하면서 울 산업도 확장됐다. 초창기에는 모직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 원사에서 수공으로 섬유를 자아낸 후 옷을 만들었

다. 그러나 방직 기술이 개발된 후 모직 산업이 주름을 잡게 됐고 한 문명에서 다른 문명으로 확산됐으며 수익성이 높았다. 영국 같은 여러 지역에서 모직은 표준 옷감이 됐다.

호주가 식민지화 되면서 모직 거래를 주요 산업으로 삼았으며 이는 현대까지 이어지게 됐다. 오늘날 기술이 발전하면서 합성 소재를 만들 수 있게 됐지만 울에 비견할 만한 것은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다.

울의 장점 중 하나는 열 전도성이 낮다는 것이다. 즉, 추운 곳에서 울 소재의 의류를 입고 있다면 패브릭 안에서 열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리고 반대로 더운 지역에서 울 소재의



▲클로즈업한 미가공 울

옷을 입고 있다면 외부의 열기가 적게 들어온다는 의미다. 그리고 탄력성이 뛰어나지만 불이 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같은 울의 장점은 섬유 구조 때문이다. 섬유 표면에 붙은 미늘 같

은 것이 서로 단단히 잡고 있어 튼튼하다.

가장 오래된 형태의 모직 풋웨어는 양말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모직물로 만든 가장 오래된 풋웨어는 1500년 전 펠티드 울로 만든 일종의 부츠다. 12세기 내내 중앙 아시아에서는 사람들이 모직 양말을 신었으며 때때로 발 밑에 가죽으로 된 밑창을 덧대 신었다.

비잔틴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대 그리스인의 모직 신발에는 많은 장식품을 달았다. 그리고 이 당시 풋웨어의 주요 소재는 울이었다.

다른 소재와는 달리, 오늘날의 스니커즈에서는 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나이키와 아



디다스, 아식스와 브룩스 같은 브랜드들은 운동선수들의 걸음으로써 모직 저지와 울로 만든 재킷을 제작하고 있다. 울은 캔버스 대체할 정도로 따뜻하고 탄성이 있지만 발을 지지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풋웨어에

서는 모직 패브릭보다는 메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안정성을 위해 가죽을 덧대고 있다.

오늘날 스니커즈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플라이니트와 프라임니트 같은 기술이다. 하지만 최근 아디다스가 모직으로 만든 프라임니트를 ‘윈터 울’ 버전으로 출시했다. 그리고 컨버스도 울리치와 협업하면서 버팔로 플래드를 제작하고 있고 조던 브랜드도 겨울용 울 상품을 고안하고 있다.

울은 스니커즈로는 완벽한 소재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패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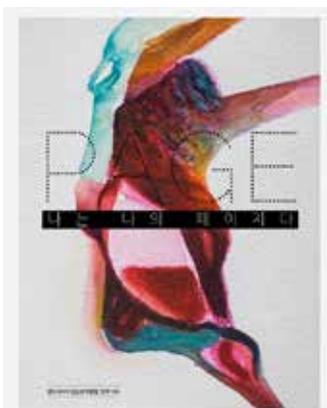
▲ 컨버스 x 울리치의 스페셜 버팔로 플래드



▲ 현미경으로 본 울 섬유

릭 업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리고 이 오래된 섬유의 고유한 탄력성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인문창작클럽, 2019 인작 웹진 3호 출간



▲ 2019인작웹진3호 표지(인작 제공)
인도네시아 인문창작클럽(회장 이강현)의 2019 인작 웹진 3호가 출간되었다.

이번 호는 “PAGE-나는 나의 페이지다” 라는 제목으로, 회원 각자가 자신만의 페이지를 가지고 창작하는 사람들이고, 그 페이지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글을 쓴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2017년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하며 다름과 차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교류를 통해 따로 또 함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는 취지 아래 결성된 인도네시아 인문창작클럽 인작(회장 이강현)은,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 최초로 온라인 웹진 형식의 인문창작 집을 발간하여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한인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인문학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다.

15명의 회원들이 일 년 동안 인문학 모임을 통해 토론한 내용과 한인 신문에 연재해 온 칼럼, 그 외의 개인 원고들을 모아 다양하고 풍부한 읽을거리를 개인별 페이지에 모아 담았다. 또한 표지그림과 디자인은 한국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영민 화가가 주도하여 미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인문창작클럽 <인작>은 내년부터 제4기 활동을 시작하며, 품위 있고 빛나는 무게감을 지닌 인문창작 모임으로 성장해 나가는 한편 더욱 깊이 있고 신선한 기획으로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에 새로운 창작 지평을 열어간다는 다짐을 밝혔다.

웹진 “PAGE-나는 나의 페이지다” 는 아래의 링크로 누구나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다.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e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eara - Jawa Tengah

株式会社 三湖ボイラー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iler.com

PT. HANSHIN AIR COMPANY

프로스펙스는 38년 된 브랜드다.

1020세대 사이에선 ‘한물 간 브랜드’ 다.

하지만 2017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프로스펙스의 초기 F 모양 로고를 넣은 오리지널 라인에 젊은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뉴트로’ (새로운 복고)와 ‘어글리슈즈’ 열풍을 타고 프로스펙스 신발은 ‘에스컬지만 뭔가 멋스러운 제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오리지널 라인의 대표 상품인 어글리슈즈 ‘스택스’는 출시 2년도 채 안돼 10만 켤레나 팔렸다.

올해 9월 스택스2를 내놓은 프로스펙스는 내년부터 모든 제품을 ‘오리지널 버전’으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쓰는 로고 대신 1981년 브랜드가 시작할 때 썼던 옛 로고를 그대로 살리고 당시 디자인을 재해석해 내놓는다.

“‘올드’를 ‘뉴’로 바꿔라”

2017년 취임한 문성준 대표는 ‘이대로 가면 프로스펙스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브랜드도 소비자도 나이가 들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프로스펙스팀을 불렀다.

부활 꿈꾸는 프로스펙스 ... 로고 되살린다

문 대표는 “역사를 알고 있는 중장년층만 찾는 브랜드는 발전할 수 없다”며 “젊은 층에 매력적인 뉴트로 상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팀은 과거를 돌아봤다. 1980~1990년대 프로스펙스는 모든 세대가 입고, 신고 싶어 하는 브랜드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옛 제품 리스트를 모두 꺼내 들여다봤다.

지금 출시해도 잘 팔릴 만한 ‘복고풍’ 제품도 있었다.

이 중 몇 가지를 손봐 ‘오리지널 라인’으로 내놓기로 했다.

신발 옆면에 F 로고를 길게 쪽 그려 넣은 스니커즈를 내놨다.

또 밀레니얼세대들이 좋아하는 두툼한 굽을 적용한 어글리슈즈 ‘스택스’도 내놨다. 반응은 좋았다.

스택스 10만 켤레가 팔린 것은 내부에서도 예상 못한 일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벌였다.

유명 유튜버인 짱구대디, 최겨울 등을 통해 제품을 알렸

프로스펙스 브랜드 개편 개요

컨셉트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좋은 것
목표	‘전 국민이 갖고 싶어하던 토종 스포츠 브랜드’ 명성 되찾기
주력제품	초창기 로고+디자인 재해석한 뉴트로 신발
타겟 소비자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층
유통망	무신사 등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
마케팅	유튜버 등과 협업 강화
목표 연매출	2020년 1700억원



다. 협업(컬래버레이션)도 했다.

‘노양’ 브랜드와 협업한 ‘프앙 물’ 신발은 한정판 800켤레가 다 팔렸다.

스택스 성공 이후 스택스2를 내놓은 프로스펙스는 전체 제품군을 손보는 ‘브랜드 리뉴얼’에 착수했다.

문 대표는 “토종 스포츠 브랜드로서 그동안 히트시켰던 수많은 상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프로스펙스만의 감성을 강조하자”고 주문했다.

‘88올림픽’의 영광을 다시 한번

프로스펙스가 브랜드 전체를 재정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김연아 워킹화’ ‘김수현 워킹화’를 내놓으면서 반짝 상승세를 탔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특정 제품 한두 개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문 대표는 모두 바꾸기로 했다.

그 자산은 브랜드가 가진 역사와 과거의 히트 상품이다.

프로스펙스를 운영하는 LS네트웍스 관계자는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들도 100년, 200년 된 브랜드 히스토리를 강조하면서 옛 아카이브를 복원한 신제품을 새로 내놓고 있다”며 “우리도 ‘올드’하다는 이미지를 역으로 이용해 뉴트로에 맞는 제품으로 승부를 띄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프로스펙스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후원하면서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올림픽이 부른다 프로-스펙스’라는 광고를 내보내기

도 했다.

“우리의 상표, 우리의 스포츠화로 승리를 차지합시다”가 프로스펙스 슬로건이었다.

당시 F 로고가 크게 들어간 굽 낮은 운동화는 말 그대로 대세였다.

프로스펙스는 이를 변형한 새 상품을 개발했다.

굽이 두툼하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헬리우스 이블루션’, F 로고를 옆 라인 가득 채운 ‘베어리썬’, 어글리슈즈지만 라인을 부드럽게 바꾼 ‘케이나인’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경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1st National Assembly Overseas Voting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Koreans around the world: You are a South Korean voter.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you must apply or register by 15th February 2020.

2020.2.15.까지

신고·신청 방법
Method for Application or Registration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On the internet (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official government office / mobile booths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Through post / email

투표기간 | 2020. 4. 1. ~ 4. 6. (기간 중 6일 이내)
Voting Period | 2020. 4. 1. - 4. 6. (Duration of 6 days)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Apply and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mofa.go.kr) 참고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details and further information.

직접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별도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됩니다.
Those who are on the overseas voting list for the previous election may participate in overseas voting without additional registration. However, individual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overseas voting two consecutive times or mor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2017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deleted from the permanent lis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mm x 25mm
3. 35mm Spandek
920mm x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x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x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82mm x 35mm x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가황 고무로 만든 밑창, 그 유래와 발전 상황



우수한 품질의 고무가 없다면 스니커즈도 개발되지 못했을 것이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천연 고무를 사용해오고 있지만, 신발 밑창을 제작하기 위해 매일 나무 수액을 뽑고 있지는 않다. 첨가제를 혼합하거나 천연 라텍스를 가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됐으며 뛰어난 화합물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풋웨어 역사상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가황 고무 스니커즈다.



고대 남아메리카의 올멕(Olmec) 사람들은 고무 나무에서 천연 라텍스를 추출해 사용하는 방법을 최초로 발견했다. 이들은 나무 껍질을 작게 절개해 우유 같이 하얀 물질을 추출했다. 이 우유 같이 하얗고 점성이 있는 물질을 끓여 고무공을 만들어 전통적인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공놀이 시작됐다.

이는 기원전 1600년의 사례다. 그리고 이 같은 기술은 고대 세계에 전파됐다. 이처럼 초창기의 문명 사회에서 고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고무 나무 식물이 자라는 전세계 온대 기후 지역에서는 고무를 온갖 용도로 활용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시아에서 전세계 천연 고무 생산의 3분의 1 가량을 맡고 있다.



▲ 토마스 헨콕

서구 국가에서 고무는 비교적 최근까지 미지의 영역이었다. 아스텍 문명에서는 오랫동안 고무를 방수성 패브릭으로 사용해왔지만, 서양에서는 1819년 토마스 헨콕이라는 영국의 자동차 차체 제작공이 고무를 승객 보호용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찰스 굿이어라는 사람이 고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험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두 사람 모두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1844년 헨콕은 영국 특허청에 가황 고무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그리고 굿이어는 그 후 8주 후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굿이어가 고무를 획기적으로 개발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헨콕이 굿이어보다 앞서 기술을 개발했으며 특허도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반스 와플을 들고 있는 크리스천 호소이

본래의 가황(Vulcanisation) 방법은 천연고무에 황을 혼합한 후 가열하는 것이다. 이 때, 황은 고무의 화학 구조를 바꾸고 더욱 강하고 내구력이 좋게 하기 위해 폴리머 사이에 교차결합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가공 과정의 명칭은 고대 로마의 불의 신 '벌칸(Vulcan)'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제작된 고무는 천연고무보다 탄성과 마찰력이 뛰어나고 부패성이 적다.

가황 고무는 신발 밑창을 위한 확실한 선택이다. 가죽보다 마찰력이 뛰어나고 습기에도 약해지지 않는다. 처음으로 고무를 신발 밑창으로 사용하던 시기는 영국의 한 회사가 크로켓용 신발을 위해 플림솔(plimsoll) 밑창을 개발한 18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1892년, 영국의 여러 풋웨어 회사들이 캔버스 소재의 어퍼에 고무 밑창 신발을 제작하면서 그 인기가 시작했다.



완벽한 가황 밑창 구성법은 매우 단순하다. 고무 소재의 아웃솔을 신발 바닥에 배치한 후 수선용 윗가죽(foxing)이라고 부르는 띠로 미드솔을 고정할 수 있게 감싼다. 이와 동일한 배치 방법을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다. 고무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 이 같은 공정을 진행하고 이 후 모 든 것을 부착한 후 전체 신발을 마감하기 위해 가황 오븐에 집어 넣는다.

1890년대부터 가황 고무의 주요 소비자 중 하나는 자동차 산업이었다. 차량들이 점점 더 일반적인 상품이 되면서 타이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1909년 독일의 한 연구팀이 석유 부산물에서 합성할 수 있는 폴리머를 발견하면서 합성 고무를 최초로 개발했다.

그리고 1910년 러시아의 연구

팀이 소규모 상업 제품에 적합한 합성 고무를 개발했다. 이 제품들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됐으며 이 후 세계적으로 고무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종전 후 합성 고무는 사라졌지만 가황 천연 고무는 여전히 뛰어난 제품으로 인정 받았다. 종전 후, 컨버스와 케츠 같은 브랜드들이 생겨났으며 가황 고무를 밑창으로 사용한 운동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20년대 고무 수요가 높아져 헨리 포드는 브라질의 한 도시에 포드랜드아(Fordlandia)라는 명칭을 붙이고 자동차 마감재에 필요한 고무 농장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운동용 풋웨어 산업이 번성하면서 점점 더 많은 브랜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찰스 '척' 테일러가 미국에서 농구를 알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컨버스 올 스타(Converse All Star)와 '논 스킨드(Non-Skid)'가 유행했다. 아디다스와 푸마의 설립자인 대슬러 형제는 1930년대 독일에서 명성을 얻으며 가죽 트랙화를 제작했다. 하지만 이들도 곧 가황 밑창을 사용한 실내 스포츠화를 제작했다.



▲ 고무를 수집하고 있는 소년 두 명

2차 세계대전 당시 고무 밑창이 군화에 최초로 도입됐다.

전쟁이 끝난 후, 젊은 세대들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포츠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풋웨어의 수요도 늘기 시작했다.



▲ 찰스 '척' 테일러

1950년대와 60년대 웨스트 코스트 지역에서는 서핑이 인기를 끌었고 세계적으로 반스 같은 브랜드들이 인지도를 얻었다. 초창기 스케이트보더들은 마찰력과 착용감이 뛰어난 반스 신발을 신었고 이는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



전체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황 신발 어퍼로 합성 소재는 좋지 않다. 녹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들어 운동화는 경량의 나일론과 EVA 폼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가황 과정이 필요한 운동화는 입지를 잃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캐주얼화에서는 가황 고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캔버스 혹은 가죽 어퍼와 가황 고무 밑창을 결합한 신발을 제작하고 있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Best Quality
Fast Delivery